

경마

8

2019년 7월 26·27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한국마사회, 2019년 레저말 품평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3일부터 이틀간 장수군 승마장에서 ‘레저말 품평회’를 시행했다. 말이 기초 승마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승마 선진국 수준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0년 역사의 프랑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승 조련이 쉽지 않은 2세 마부터 평가해 농가에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생산농가의 반응도 좋아 올해는 전년보다 29% 늘어난 76두가 참가했다. 미기승마와 기승마를 나누어 순차, 행동, 체형 등을 평가해 37%가 합격했다. 합격마는 한국마사회와 SFET의 공동 인증을 받으며 조련 지원 목적의 상금을 받는다.

렛츠런파크 서울, 8월 3·4일 휴장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이 8월 3일과 4일 휴장한다. 혹서기를 맞아 경주는 시행되지 않고 제주와 부경의 경주를 중계 발매한다. 3일에는 부경 중계 8개, 제주 중계 8개, 4일에는 부경 경주만 15개가 발매된다. 8월 둘째 주는 렛츠런파크 부경이 휴장해 10일 서울 시행 11개, 제주 경주 6개가 발매된다. 11일에는 서울 경주만 15개 발매된다. 8월까지 야간 경마가 이어져 토요일 첫 경주 출발이 오후 2시로 늦춰지고, 일요일은 기존과 같은 오전 10시 45분이다. 마지막 경주는 토요일 오후 9시, 일요일은 오후 6시에 출발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경마 포커스 | 한국마사회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교육’



청소년에게 말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교육’ 현장. 참가자들이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전문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동물병원, 장제소 등 경마공원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전문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동물병원, 장제소 등 경마공원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말 관련 직업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동물병원·장제소 등 경마공원 견학
해설가 동원 ‘찾아가는 진로교육’도
수의사 등 ‘말산업 휴먼북’ 대폭 확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15일 재개했다. 특화된 말산업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말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6년째로 그동안 참가단체 1469개, 2만 4976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지난해

에는 6285명이 참가했으며,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대상도 수상했다. 교육은 신청인들이 렛츠런파크 서울을 방문해 전문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동물병원, 장제소 등 경마공원 시설을 견학하는 코스로 이뤄져 있다. 매주 월~토요일 신청할 수 있고 총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다. 정원 25명 내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대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 가능하다.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아가기 힘들다면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문 해설사가 신청한 학교나 단체를 방문해 말의 역사, 특성, 관련 직업 등을 알려준다. 장애아동처럼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교육기회 소외계층을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5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강당 등을 활용하면 한번에 200~300명까지 대규모 교육도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는 수의사, 장제사, 말 관리사 등 말산업 핵심 직업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말산업 휴먼북’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4회에서 10회로 늘릴 계획이다. 20~30분 정도 말산업

전문 직업군을 만나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서울 경마공원에서, 또는 신청 단체를 찾아가서 진행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 관련 직종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지만 장래가 유망하고 동물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방학을 맞아 특별한 체험활동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교육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렛츠런파크 서울 홈페이지(park.kr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국산마 ‘케이엔블루’ vs 외산마 ‘선더라이트’

28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

레이팅 110 이하의 국산마와 외산마 신예들이 2000m 장거리 대결을 펼친다. 렛츠런파크 서울 28일 제11경주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1등급 경주마들이 출전해 총상금 1억1000만 원을 노린다.

●케이엔블루(거, 4세, 한국, R90, 박대홍 조교사, 승률 43.8%, 복승률 75.0%)
지난 1년간 8번의 경주에서 다섯 번의

우승과 세 번의 2위를 차지했다. 특히 1등급 데뷔전이었던 직전 2300m에서 2위를 해 장거리 능력을 검증받았다. 2000m는 처음이다.

●선더라이트(수, 5세, 미국, R91, 우창구 조교사, 승률 18.8%, 복승률 50.0%)
5월 먼로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춘 스포츠경향배 경주에서 막판 직선주로의 번개같은 추입으로 5마리를 제치는 짜릿한 역전승을 보여주었다. 1살 차이인 케이엔블루와 처음

으로 격돌한다. 2000m는 첫 출전이다.

●천마(수, 6세, 한국, R93, 이관호 조교사, 승률 25.8%, 복승률 29.0%)
인기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다. 1800m에 15번 출전해 연승률 60%를 기록할 만큼 장거리에서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보여주는 경주마다. 6세가 되면서 다소 성적에 기복이 있지만 올해 다승 7위를 지키는 이관호 조교사의 필승 전략이 기대된다.

●해마루(거, 8세, 한국, R106, 우창구 조교사, 승률 26.1%, 복승률 32.6%)
출전마중 가장 높은 레이팅(106)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해럴드경제배 대상경

주를 포함하여 2000m에서 두 번의 우승 전적이 있다. 8세지만 우승후보로 기대된다. 선더라이트와 함께 우창구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장산카우보이(거, 6세, 미국, R87, 리카디 조교사, 승률 14.7%, 복승률 23.5%)
대상경주 8회 우승에 빛나는 감병진 마주의 경주마다. 국내 경주마 레이팅 3위의 청담도끼와 함께 리카디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2017~18년에 17번의 경주에서 10번이나 순위상금을 획득할 만큼 안정적인이었으나 올해는 다소 불안하다. 꾸준히 장거리 경주를 도전하는 만큼 재기를 노린다. 정용운 기자



케이토토 ‘예측의 신’ 이벤트 팀K리그 vs 유벤투스 승무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예측의 신(神)’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의 대상경기는 오는 26일(금) 오후 8시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팀K리그-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이며 최종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벤투스에서는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해, 이과인, 마투이디, 피아니치 등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출돌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팀K리그 역시 박주영과 이동국을 중심으로 득점 1위 타카토와 김보경, 이용, 조현우 등 올스타가 출전한다.

이번 ‘예측의 신’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방문 후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자신의 예측을 댓글로 달면 된다. 친선경기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10명의 스포츠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4명에게는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후반기 시작…야구팬 “KT 2~3점, LG 4~5점”

야구토토 스페셜 70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26일(금)에 열리는 2019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70회차 투표용 중간 집계 결과, KT-LG(1경기)전에서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이 예고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KT는 43.67%를 기록했고, 원정팀인 LG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는 41.04%의 지지율 받았다. 나머지 15.29%는 양 팀의 같은 점수대를 예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점수대는 KT(2~3점)-LG(4~5점)이 6.46%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KT(4~5점)-LG(2~3점)과 KT(6~7점)-LG(4~5점)이 각각 6.16%와 5.80%로 그 뒤를 이었다.

KBO 후반기 리그에서 KT와 LG가 만난다. LG는 현재 리그 4위(52승1무42패)에 올라있고, KT는 그보다 다소 낮은 6위(47승1무49패)에 위치하고 있다. 순위에서 앞서고 있는 LG는 KT와의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7승2패로 우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KT의

기세가 무섭다. KT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상위권팀들인 NC,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해 5연승을 이어나갔다. KT는 두 팀과 펼친 다섯 경기에서 무려 37점(경기당 7.4점)을 기록하며,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KT는 현재 4위 LG와 6경기차를 기록하고 있지만, 5위 NC와는 1.5경기차밖에 나지 않는다. 올해 강력한 마운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LG지만,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T가 안방의 이점을 살려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치열한 승부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두산-KIA(1경기)전에서는 원정팀인 KIA의 승리 예상이 54.53%로 나타났고, 두산의 승리 예상은 30.26%를 기록했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5.21%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두산(2~3점)-KIA(4~5점)이 8.03%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키움-NC(3경기)전에서는 NC 승리 예상(55.21%), 키움 승리 예상(29.02%), 양 팀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5.77%)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키움(2~3점)-NC(4~5점)이 7.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스포츠토토, 추석연휴 일시 발매 휴식

9월 9일부터 7일간…9월 16일 재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이 판매점주들의 휴식 보장과 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포함되는 오는 9월 9일(월) 0시부터 15일(일) 24시까지 7일간 일시 발매휴식에 들어간다.

발매는 16일(월)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지만, 발매휴식 기간 동안 환급을 비롯해 환불과 고객센터 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발매휴식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해 시기와 방법이 결정됐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피로에 지친 전국 6500여개소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주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스포츠토토의 건전한 판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판매점주들의 경우 1년 동안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1일 평균 14시간씩 투표권 발매에 매진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도 1주일 동안 무려 98시간을 업무에 종사해야 할 정도로 피로도가 높은 직업군인 셈이다.

두 번째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건전화 정책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한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다.

